

트럼프, '방위비·무역' 문제 또 유럽 압박...韓도 우려 커질듯

첫 인터뷰서 "이중고" 주장... '나토 탈퇴 카드'로 방위비 공세 머니 머신 지칭 韓 부담 ↑ ...탄핵정국서 효과적 대응도 우려 삼성·LG 등 한국산 수입 세타기 고율관세 부과 조치 자랑도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사진) 27기 미국 행정부에서 한국을 겨냥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거나 '관세 폭탄'을 부과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유럽에 대해 방위비와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면서 러시아 위협

에 대한 안보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미국의 탈퇴를 시사하는 등 초강경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나토는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 무역에서 유럽 국가들은 우리를 끔찍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자동차와 식료품 등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면서 "그것에 더해 우리가 그들을 방어하고 있다. 그것은 이중고"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1기 때 나토에 강경한 입장을 보인 덕분에(유럽이) 수천억 달러를 내도록 했다면서 "만약 그들이 청구서를 지불하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당연히 나토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진행자가 "그렇지 않으면 탈퇴

가능성도 고려하나"라고 묻자 "물론이다"고 답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러한 언급은 이번 대선 과정에 유럽의 동맹국들을 향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고 '나토 탈퇴 불사' 위협을 가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끌어내겠다는 공약을 되풀이해 온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한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유럽 동맹국들을 바라보는 것과 유사한 인식을 여러 차례 내비친 바 있다.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10월 15일 사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는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부르면서 연 100억 달러(약 14조 원)의 방위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이튿날 방영된 폭스뉴스의 타운홀 미팅에서는 "그들(한국)은 돈을 내지 않는다. 그들은 부유한 나라다"면서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용당할 수만은 없다"고 말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런 발언은 트럼프 당선인이 재집권 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쪽으로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해석을 낳았다.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유럽 동맹에 대한 문제의식을 재차 확인한 터라 한국 역시 그의 '안보 무임승차론 압박'의 범주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기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트럼프 신 행정부의 '압력'에 효과적으

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선 부처에서 '사령탑' 공백 속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인터뷰에서 2018년 1월 셰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해 한국의 삼성과 LG 등이 생산한 수입 세타기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를 자신의 업적이라며 자랑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오하이오의 월풀을 보라. 중국과 한국에서 들어오는 세타기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면서 "(그 결과) 수천 개, 수만 개의 일자리를 구했다"고 과시했다. /연합뉴스

반세기 넘는 독재정권 몰락...시리아 거리 환희 넘실

알아사드 대통령 러시아로 도피 수도서 반군 지지자들 거리나와 긴 내전·탄압에 희생된 이들도 간혀있던 정치범 수천명 등 석방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시리아 아사드 일가의 독재가 지난 8일(현지시간)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해외 도피로 막을 내리자 환희에 찬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독재 정권의 몰락을 반겼다.

수년간 반군이 통제해 온 북서부 지역은 아사드 정권의 몰락에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 동시에 그동안 아사드 정권의 탄압에 희생당한 이들에 대한 애도도 이어졌다.

그간 아사드 정권의 본격적 몰락이 간밤에 통제권을 반군에 내준 수도 다마스쿠스에서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지지자들이 광장에 나와 막 친 입한 반군을 환영했다.

이날 반군이 점령한 이德利브주를 비롯해 시리아 북서부 지역 주민들은 이날 들려온 반군의 다마스쿠스 진입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지역 기자 아흐메드 알마살라니는 이날 알아사드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식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



시리아 반군이 내전 13년 만에 승리를 선언한 지난 8일(현지시간) 거리로 나온 주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고 발코니로 뛰쳐나가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

내전에서 남편을 잃었다는 다른 주민 에만 와드도 눈물을 참는 목소리로 "하느님에게 감사하다"고 거듭 말하며 감격에 젖었다.

다마스쿠스 출신으로 내전 발발 이후 북서부로 피란을 왔다는 그는 "우리의 자유가 돌아왔다"면서 "13년간의 지배, 13년간의 피란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동시에 내전과 아사드 정권의 탄압으로 목숨을 잃거나 연락이 끊긴 이들을 떠올리며 슬퍼했다.

거리에는 평소처럼 차들이 다녔지만, 가게들은 대부분 문을 닫은 등 흑시 모를 혼란에 주민들은 대체로 몸을 사리는 모습이었다.

차를 타고 지나가는 몇몇 민간인들은 취재진에게 미소를 짓거나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평화를 의미하는 '피스 사인'을 손으로 만들어 보이면서 독재

이후의 시리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BBC는 전했다.

한편 고문 등으로 악명이 높은 아사드 정권의 감옥에 수감됐던 정치범들도 자유를 되찾았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수도 다마스쿠스를 장악하고 아사드 정권 붕괴를 선언한 시리아 반군은 다마스쿠스 북쪽의 약명 높은 세드나야 감옥을 비롯한 각지의 감옥에서 수감자들을 석방했다. /연합뉴스

모차르트 친필 편지, 6억6천만원 경매 낙찰

1783년 佛악보업자에 '하이든 사중주집' 출판 제안 내용

작곡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1756-1791)의 친필 편지가 온라인 경매에서 44만 유로(6억6천만원)에 유럽의 개인 수집가에게 낙찰됐다.

지난 7일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남부 말라가에 있는 경매업체 '인터내셔널 오토그래프 옥션스 유럽'(IAA 유럽)이 이런 내용을 밝혔다.

경매 시작 가격은 10만 유로(1억5천만원)였으나 낙찰가는 쪽쪽 상승했으며 미국과 아시아 등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고 업체 측은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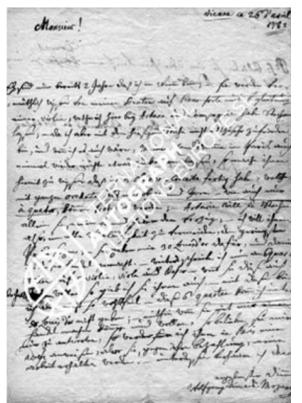
이 편지는 모차르트가 1783년 4월에 독일 태생의 프랑스 악보출판업자 장-조르주 지버(1738-1822)에게 보낸 것으로, 독일어로 작성됐다.

이 편지의 원본은 한동안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 가문의 기록보관소에서 나중에 발견됐다.

이 편지에는 모차르트가 지버에게 악보로 출판하도록 피아노 협주곡 3곡과 현악사중주 6곡 등 작품들을 판매하겠다고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 거론된 현악사중주 6곡은 모차르트의 유명한 '하이든 사중주집'에 대한 첫 언급으로 추정된다.

모차르트의 '하이든 사중주집'은 모



6억6천만원에 낙찰된 모차르트 친필 편지. /연합뉴스

차르트가 1785년 빈에서 '작품 10'으로 출판한 6곡의 현악사중주 모음이다. 현대 번호로는 현악사중주 제14-19번이다.

모차르트가 존경하는 음악계 선배 요제프 하이든(1732-1809)에게 헌정했기 때문에 이런 통칭이 붙었다.

하이든은 이 작품들이 출판되기 전인 1785년 1월과 2월 모차르트의 집에서 열린 두 차례 모임에서 전곡을 들어본 후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트에게 극찬을 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